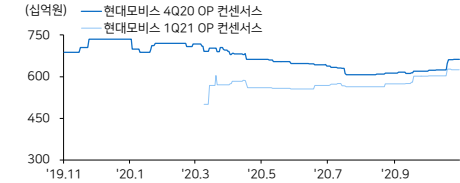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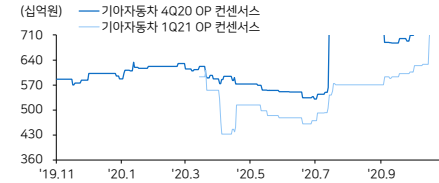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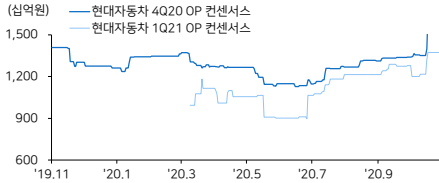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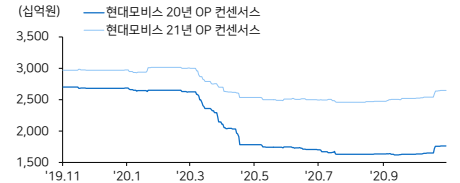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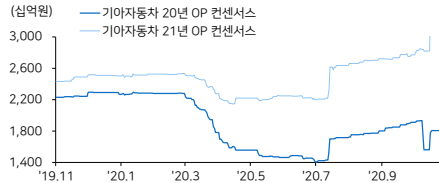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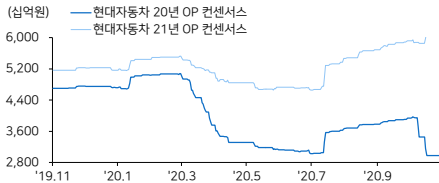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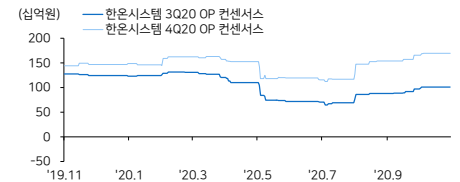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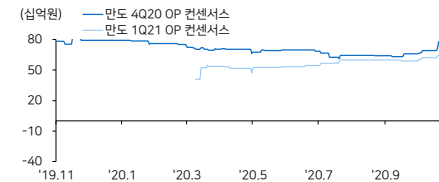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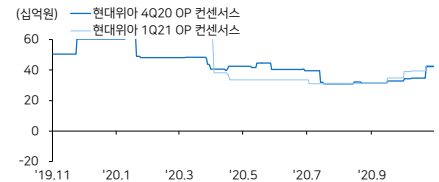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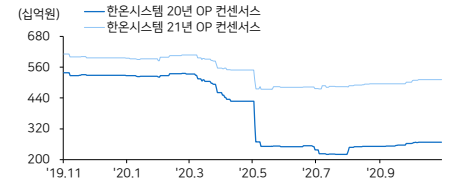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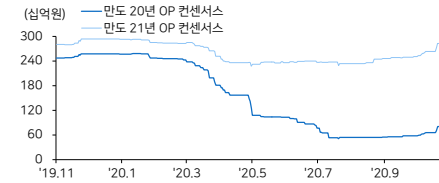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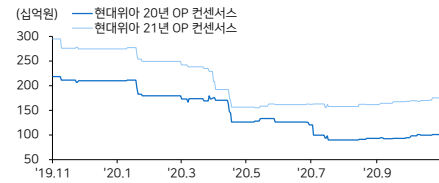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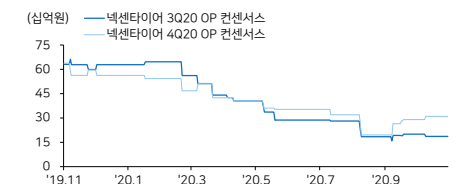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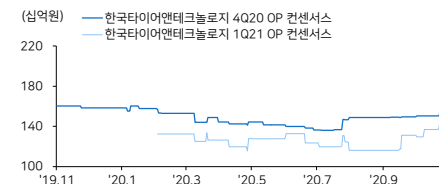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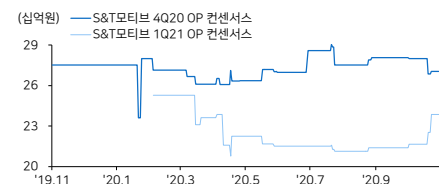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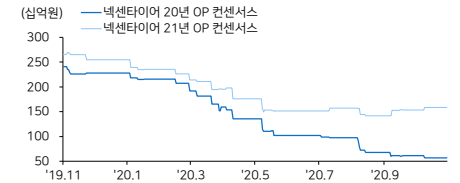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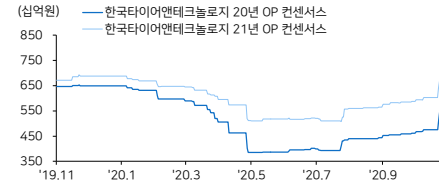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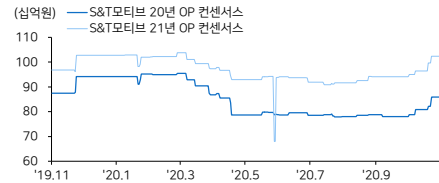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미국서 온라인 전락 효험 본 현대차, '친환경·신차'로 박차 (한국경제)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미국 시장 공략 카드로 '온라인 판매'에 이어 '친환경·신차'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는 연 말 제네시스 브랜즈 G80, GV80를 북미 시장에 선보이며, 내년 초에는 4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도 출격할 예정이다. <https://bit.ly/35JHLYv>

현대·기아차가 일부 수출 속도내는 까닭 (한겨레)

15일 이후 현대·기아차가 영입한 경쟁사 출신 인원은 최소 30명. 이는 해외 판매법인에 근무 중인 인원을 제외한 수치. BMW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VW와 님러 출신이 각각 5명. 최근에는 니오의 출신 요한 페이즌과 바오엔 출신 리명 등 중국 비중도 증가. <https://bit.ly/35mMIXd>

바이든, '메이드 인 USA' 더 강조할텐데...현대 전기차 미국서 생산? (중앙일보)

미국 정부가 전기차 확대 정책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맞춰지면서 국내 기업 간 상황이 갈리고 있음. 미국에 전기차 생산 라인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선택은 복잡해진 반면, 이미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한층 유리한 입장. <https://bit.ly/3lnonub>

하를 나는 자동차, 진짜 하늘에 뻗다...국내서 '드론 택시' 첫 비행 (JTBC뉴스)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제시시스템을 활용한 드론 택시·드론 배송 실증비행 행사를 열었다. 중국 드론업체인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승 유인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상공을 날았다. <https://bit.ly/32AJ4ai>

11월 초 수출 20% 급등...반도체·자동차 호조 (비즈팩트)

이달 1~10일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12% 이상 증가.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새 31.9% 증가. 무선통신기기와 송출역시 8.3%, 33.3% 증가. <https://bit.ly/3kvD35N>

기아차,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4인승은 12월에 (ZD네트리아)

기아자동차가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과 9인승 가솔린 모델을 11월 출시. 기대를 모으고 있는 4인승과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https://bit.ly/3lmE54J>

자율주행 전기버스 나온다...LG유플러스, 내년 3분기까지 실증 진행 (아이티비즈)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블루스페이스(대표 크리스틴 문), 우진산전(대표 김영정), 메트로플러스(대표 김태호) 등 국내 외 전문업체들과 손잡고 '자율주행버스' 사업에 본격 나섬. <https://bit.ly/3pk8BrU>

불보자동차, 2020 유럽연합 CO2 배출 목표 초과 달성 (뉴시스)

불보자동차와 자회사 폴스타가 유럽연합(EU)이 규정한 202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보자동차그룹은 포드와 풀링(Pooling) 협약을 통해 잔여 탄소배출권 거래를 결정. <https://bit.ly/2UmD2pe>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